



####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또 다른 전쟁소식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 속히 종전의 소식이 들리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니 지난 1년간 과연 내 삶은, 내 믿음은 잘 달려 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잘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축복의 열매들이 한가득 열리기를 바라며 지나온 소식을 전합니다. ♥

#### ◆ 교회 협력 사역

이곳 한인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현지인 교회는 모두 5개입니다. 그 중에 2개 교회가 자립을 하였고, 3개 교회는 자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3개 교회 중에 한 교회는 현재 한인교회 예배당에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른 두 교회는 티후아나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자립교회를 어떻게든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교회에서 모여졌고, 선교부장 집사님과 장로님,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진 맨 위에 있는 교회는 호렘 교회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30여년 전에 개척하였고 지금은 현지인 목회자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도가 약 20여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교회는 파시피코 교회인데 이곳은 성도가 약 7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현지 목사는 이곳으로 부임한지 10개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교회를 대상으로 어린이 사역 및 방과 후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인교회와 협력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교회들을 위한 사역이 시작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 ◆ 한글 학교

한글 학교는 이곳 멕시코에서도 강력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한글 학교가 시작되었고 저와 아내 최선교사는 현지인들을 담당하여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과 관계를 잘 맺으므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현지인 사역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한국어 학사와 더불어 교원2급 자격증을 딴 것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 학교를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곳에서 진행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추석 맞이 한복 체험 및 윷놀이

◆ 난민 캠프에 가다

티후아나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남미, 중미에서 오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길도 포장되어 있지 않은 협곡 구석에 아이티 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곳곳마다 난민들을 위한 침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의 큰 공동 식당에서는 한끼에 천명분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의 난민 센터에도 방문하였습니다.



곳곳마다 침대로 가득하다. 심지어 예배당까지.. 이마저 자리가 없는 사람은 노숙을 한다.

이렇게 난민 사역을 하는 곳에 방문한 이유는 넘쳐나는 난민들을 위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난민들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곳 티후아나가 일자리도 많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국경지역으로 난민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도 못 구하고 마땅히 거할 곳도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도시에서 노숙자가 됩니다. 이처럼 오갈 곳 없는 난민들과 노숙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곳 교회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기도하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언어 훈련

언어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기에 집중하여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은 이곳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고 큰 아이와 둘째의 진로 문제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해야만 하는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리되었고, 지난 7월부터 이곳 대학교의 어학당에 등록하여 본격적인 언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어를 배우기에 여러 조건들이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언어를 배워 현지인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하나를 외우면 돌을 까먹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언어를 잘 습득하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저희 가정 소식

지난 8월에 든든하고 좋은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장 없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 아이 하연이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 자립하여 생활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신앙 생활을 잘 이어 나가고 현재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 거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하진이는 LA에 있는 단과대학을 다니며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청년부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셋째 하은이와 넷째 하민이는 내년에 한국에서 검정 고시를 보기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기념일 망자의 날

# 기도제목

- 언어습득을 위한 지혜를 주소서.
-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기도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좋은 열매들이 있도록.
- 하연이의 취업과 배움을 위한 하진, 하은, 하민이의 학비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후원계좌 990-090819-582 하나은행**  
(GP) 이병호 / 최형진




선교사역에 함께 하기

# 월1만원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선교사역은 누군가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든든한 빌립보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주세요.





Click here to support 이병호♡최형진 사역 소식  
안녕하세요. 이병호, 최형진 선교사입니다.2010년부터 필리핀에서 대학...  
[go.missionfund.org](http://go.missionfund.org)

더 자세한 선교지 소식을 알기 원하시면 아래 카페로 가시면 됩니다~^^  
<https://cafe.daum.net/leebhm>